주 간 기 도 정 보

2025. 12. 1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노숙인 향한 끝없는 사랑…서울역 앞 139명 세례

서울역 광장, 준비된 좌석보다 많은 노숙인 모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김익형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전날 내린 눈과 뚝 떨어진 기온 탓에 냉기가 가득했던 지난 7일 서울역 지하 한켠. 찬 바람을 막기 위해 세워둔 종이상자 안에서 한 노숙인을 향한 복음 제시와 영접기도, 세례식이 거행됐다. 이강호(79) 늘사랑교회 목사의 집례 앞에 고개 숙인 노숙인은 거칠게 터진 두 손을 꼭 모아 쥔 채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늘사랑교회를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역자 22명과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날 노숙인들과 함께 드린 '서울역 광장 나눔 감사예배'에서 세례받은 노숙인은 139명. 준비된 좌석은 350석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노숙인이 모이며 예배 공간이 가득 메워졌다.

추운 겨울을 맞아 내복을 준다는 말에 세례에 참여한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목사가 빵과 우유 등을 나누며 오랫동안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이어온 이들이다. 이날 '서울역 광장 나눔 감사예배'에서 심하보(은평제일교회) 원로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실패자였던 내 삶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듯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송요한 선교사는 기타 반주에 맞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특송으로 불렀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1만2,000㎞를 날아왔다"는 그의 인사에, 노숙인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뒤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노숙인들을 위한 복음 제시와 영접기도, 세례식이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세례를 받으려는 노숙인들의 줄은 길게 이어졌다.

백승철 오직예수님교회 목사는 세례 후 성찬식을 집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 노숙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한 60대 노숙인은 "어릴 적 교회에 다닌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오늘은 진심으로 기쁘게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자원봉사자인 박귀영(30) 씨는 "어릴 적 방글라데시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곳과는 다르게 한국의 노숙인들에게서는 포기와 절망이 더 크게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며 "세례를 받은 노숙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세례를 주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진심, 성령께서 만지시는 마음이 전해진다"며 "노숙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노숙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하나님, 삶에 대한 포기와 절망으로 거리에 나온 노숙인들을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붙드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은 139명의 성도를 기억하사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향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노숙인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 지금도 이와 같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교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산 소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라”

북중 압록강 접경에 32개 도강로…차량 등 北으로 밀수

NK프로 위성사진 분석…“중, 대북 유엔제재 우회하려 비공식 교량 활용”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접경지 일대에 최소 32개의 임시 도강로를 설치해 차량과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장비 등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있다고 NK프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NK프로는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임시 도강로는 양강도 4개군(김형직·김정숙·삼수·보천)과 혜산시를 잇는 약 95㎞ 구간에 설치됐다. 북쪽 압록강 건너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를 마주하는 지역이다. 압록강 양쪽을 잇는 도강로는 2024년 4-6월 처음으로 4개가 설치됐고, 이후 현재까지 총 32개가 건설됐다.

도강로는 압록강 강바닥에 흙더미를 쌓아 만든 임시 구조물 형태였고, 시간이 지나 침수되거나 유실되면 인근에 새로운 도강로가 설치되는 식으로 늘어났다. 도강로 양측 강가에는 대형 화물이 적재·집결을 위한 새로운 흙바닥 주차장도 조성됐다.

일본의 대북 소식지 ‘림진강’은 북한 쪽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중국제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됐다면서, 차량과 정체불명의 물자 거래는 북한 대외경제성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국가적 밀수’로 규정했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북·중 간 물자 이동이 정식 도로나 철교 같은 공식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공식 경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교량은 국가가 직접 관리·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임시 도강로를 이용하면 일부 개인이나 현지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NK프로 분석에 따르면 해당 밀수가 중국 당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강로 상당수가 압록강변을 따라 진행 중인 중국의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사로 인해 수백 명의 중국 근로자·공무원·관리들이 비공식 도강로를 통한 물자 이동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첫 도강로가 설치된 직후인 2024년 7월, 신규 무기 공장을 채우기 위한 중국산 기계 수입 사실을 과시한 바 있으나, 이 장비들이 해당 도강로를 통해 반입됐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사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증강을 공언한 이후 신규 무기 공장 여러 곳을 추진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 관련 화물선을 통한 운송 경로 역시 관련 장비 이동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비공식 도강로는 수십 년 동안 양측 밀수업자들이 세관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해 왔으며, 구글 어스에서는 2013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동참한 이후 이러한 흙길 도강로가 다시 활용되는 모습도 확인된다(출처: 연합뉴스, NK News 종합).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이사야 14:5-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7-9)

하나님, 압록강 접경지에 도강로를 만들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밀반입해 유엔 대북 제재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은밀한 관계를 꾸짖어 주옵소서.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질 땅의 권세에 집착하며 나라와 민족들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의 규를 꺾어주십시오. 억압과 박해로 고통하는 북한에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깨달아 온 땅이 주의 평온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꼴을 얻어 이 백성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입시 끝나자 교회는 ‘뒷순위로’…다음세대 붙잡을 마지막 골든타임

가나안 청년 73% 고교 졸업 직후 떠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로 입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긴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앙까지 놓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교 시절 학업 중심의 생활이 끝나면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계획한다. 여행·아르바이트·취미·연애 등 그동안 미뤄온 것들을 시도하며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 대학 진학 후에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활동, 학과 모임이 이어지면서 주말 일정도 빠르게 불규칙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려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부 시절에는 부모의 동행과 주일학교 체계가 신앙생활을 붙잡아줬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러한 장치가 사라진다. 특히 타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교회를 찾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학교 교사 이 모 씨는 “이때 붙잡지 못하면 장기 이탈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접하는 음주 중심 행사, 밤 문화, 새로운 인간관계 등에 흔들리며 교회와의 거리가 더 벌어진다”고 전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청년(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73%가 고교 졸업 직후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만 놓고 봐도 31%, 즉 3명 중 1명이 이 전환기 동안 교회에서 이탈한다. 현장 사역자들이 이 시기를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관계 기반의 지속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부소장은 다음세대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 성적만능주의와 예배 약화를 꼽았다. 그는 교회와 가정이 수능을 우선순위에 두며 신앙 형성을 놓쳤고, 고3은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분위기가 입시를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능 후 성인이 되면 이러한 경험이 “예배를 빠져도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굳어져,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종철 부소장은 “신앙이라는 게 고집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훌륭한 신앙 교육법은 많다. 하지만 교회가 원칙이 흔들린 채 교육법만 이것저것 도입하는 게 문제다. 교회부터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사역네트워크 의장 김동영 목사는 “이 시기에 떠나는 청년들은 타인에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도록 본질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세대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 속에 이들이 세상과 교회 중 교회를 선택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아이굿뉴스 종합).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요한계시록 2:4-5)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44)

하나님,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신앙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영혼들이 교회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학업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죄악을 부모세대가 인정하며 다음세대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영원한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화려한 세상의 유혹으로 다음세대를 노략질하려는 사탄의 간계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헌신하여 영광의 그 날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